



부록 | 모의고사 지문 분석

2024학년도 시준6 제1차 이감 국어 모의고사 지문 분석을 수록하였습니다.

독서 _____ 92쪽

문학 _____ 99쪽

[4~9] 인문 통합

언어 표현의 의미에 대한 논쟁

지문 평가

기본적으로 관점 중심의 글이다. (가)에서는 언어 표현의 의미와 관련하여 '크립키'와 '성향주의자들'의 관점을 살핀다면, (나)에서는 '목적론적 언어 이론'의 관점을 살핀다. 여기서 '크립키'의 주장을 '성향주의자들'이 반박하는 데에 왜 실패하는지, 반대로 '목적론적 언어 이론'은 왜 반박에 성공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점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뜻이다.

키워드

(가) 인문 - 분석철학 - 크립키, 성향주의자들

아그리파, 인식론적 회의주의, 크립키, 의미 규범, 존재론적 회의주의, 변칙적 규칙, 성향주의자들, 성향

(나) 인문 - 분석철학 - 크립키, 목적론적 언어 이론

크립키, 기술적, 규범적, 목적론적 언어 이론, 생물학적 기능, 목적, 변칙적 규칙

(가) 문단 1 회의주의

- 1) 고대 그리스의 아그리파가 절대적 진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판단도 유보해야 한다는 회의적 입장을 제기한 이래, 대부분의 회의주의는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인식론적 회의주의였다.

▶ '인식론적 회의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이는 '안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관점이다.

- 2) 이와 달리 현대의 크립키는 언어 표현의 의미에 대해 보다 강한 회의주의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이는 언어 표현의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것을 넘어, 의미 규범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존재론적 회의주의이다.

▶ '크립키'는 언어 표현의 의미에 대해 '존재론적 회의주의'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언어 표현의 의미를 넘어[→ 인식론적 회의주의를 넘어], 언어 표현의 의미에 대한 규범, 즉 의미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맥락 짚기 존재론적 회의주의는 어떤 것의 '존재 자체가 성립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관점이다. 즉 앞의 이전에, 앞의 대상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더 강한 회의주의인 것이다.

인식론적 회의주의	존재론적 회의주의
무언가를 알 수 없다.	앞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 문단 2 크립키의 존재론적 회의주의

- 1) 근래에 덧셈을 배워서 57보다 작은 수에 대해서만 덧셈을 해 본 '갑'에게 누군가 '68+57'의 답을 묻는다고 해 보자. '갑'은 '+'라는 표현이 덧셈 규칙인 '더하기'를 의미한다고 여겨 '125'라고 답할 것이다.

ⓧ 맥락 짚기 구체적인 예시가 주어졌다. 이것이 크립키의 주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의식하면서 읽어야 한다. 즉 의미 규범이 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시의 각 대상이 무엇에 대응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갑'을 비롯한 우리의 통념적 인식에 따르면 '+'라는 표현의 의미는 '더하기'이다. 즉 그러한 '의미 규범'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문단-2].

'+'의 의미 : 덧셈 규칙

- 2) 그런데 크립키는 이 경우에 '+'의 의미가 '접하기'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접하기'란 두 수가 57보다 작으면 덧셈을, 둘 중 하나라도 57 이상이면 5를 산출하는 변칙적 규칙을 뜻한다. '+'가 '접하기'를 의미한다면 '갑'은 '5'라고 답해야 하는 것이다. 크립키는 '갑'이 지금까지 '+'에 대해 수행해 왔던 연산들이 '더하기'뿐 아니라 '접하기'에도 들어맞는다는 점을 들어 우리가 '+'의 의미를 덧셈 규칙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 크립키는 '접하기'라는 변칙적 규칙이 '+'의 의미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갑'은 57보다 작은 수에 대해서만 덧셈을 해 보았으므로, '더하기'가 '+'의 의미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접하기'가 그 의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57보다 작은 수에 대해서는 '더하기'나 '접하기' 모두 동일한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 주목 따라서 '+'의 의미는 '더하기'로 확정될 수가 없다. '접하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의 의미가 규범적으로 '더하기'로 확정된다는 우리의 통념과 달리[→ 언어 표현의 의미가 의미 규범에 의해 확정된다는 우리의 통념과 달리], 실제로는 그 의미를 확정할 수가 없다는 것, 즉 '의미 규범'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크립키의 주장이다.

(가) 문단 3 성향주의자들의 반론에 대한 검토

- 1) 크립키는 이와 관련하여 성향주의자들의 반론까지 고려해 보았다. 성향주의자들은 우리가 가진 성향에 의해 언어 표현의 의미가 확정된다고 본다.

ⓧ 맥락 짚기 크립키에 대한 성향주의자들의 '반박'이다. '크립키'와 '성향주의자들'의 관점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성향주의자들은 [우리의 통념과 같이] 언어 표현의 의미가 확정된다고 보는데, 그 근거를 우리의 '성향'에서 찾았다.

- 2) 가령 '갑'은 작은 수들에 대한 덧셈을 해 보면서 '○+△'의 답을 묻는 질문에 ○와 △를 더한 값을 제시하는 성향을 가지게 되어, '갑'에게 '+'는 '더하기'를 의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갑'이 예전에 접하지 못했던 '68+57'에 대해 '125'라고 답을 한 이유이다.

▶ 한마디로 갑은 계속해서 '+'에 대해 '더하기'로 받아들이는 경험을 하였으므로, 그러한 성향을 갖게 되었기에 '갑'에게 그 의미는 '더하기'로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 3) 그런데 크립키에 따르면 이는 만족스러운 반론이 되기 힘들다. 성향주의자들은 '+'의 의미를 확정해 주지 못하고, 특정 화자가 '+'의 의미에 대해 어떤 답을 줄 것인지만 말한다는 것이다.

▶ '성향주의자들'의 반론에 대한 '크립키'의 반박이다.

ⓧ 맥락 짚기 이때 '+'의 의미를 확정하는 것과 특정 화자[→ '갑'가 '+'의 의미에 대해 어떤 답을 주는 것이 별개임을 파악해야 한다. 즉 여기에 초점을 두고 크립키의 설명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표현을 구분하면서 설명하고 있을 경우에는 특히 유의해야만 한다.

'+'의 의미를 확정하는 것	특정 화자가 '+'의 의미에 대해 어떤 답을 주는 것
-----------------	-------------------------------

▶ 성향주의자들에 따르면 '갑'이 57보다 큰 수의 덧셈에 대해서도 왜 '+'의 의미에 대해 '더하기'라는 답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다. 갑이 그러한 '성향'을 갖기 때문이다.

※ 주목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 의미가 ‘더하기’로 확정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크립키’의 반박이다. 애초에 성향주의자들은 왜 ‘+’의 의미가 곱하기가 아닌, 더하기로 ‘확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답도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

4) 그래서 성향주의자들의 입장을 따를 때, ‘+’의 의미를 ‘곱하기’로 알고 있는 경우와 ‘+’의 의미를 ‘더하기’로 알고 있으나 덧셈에 있어 어떤 체계적인 실수를 범하는 경우를 구분하기 힘들다. 실수란 의미가 확정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애초에 성향주의자들의 반론은 ‘+’의 의미를 확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화자가 ‘+’의 의미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확정해서 설명할 수가 없다.

➡ 가령 ‘68+57’에 대해 ‘5’라고 답하더라도[문단2-2], 그것이 ‘+’의 의미를 곱하기로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의 의미를 더하기로 알고 있었는데 실수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애초에 ‘+’의 의미가 ‘더하기’와 ‘곱하기’ 중에서 무엇인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문단 4 크립키의 결론 및 한계

1) 결국 크립키는 “‘+’는 ‘더하기’를 의미로 갖는다.”와 같이, 언어 표현이 특정한 의미를 갖는다는 주장은 거짓이며, 언어 표현의 의미 규범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다.

➡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 ‘+’의 의미가 확정될 수 없듯이, 언어 표현의 의미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그 의미 규범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2) 다만 이러한 결론이 옳다면 우리가 어떻게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답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 우리는 실제로 ‘+’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더하기’로 받아들이고, 마찬가지로 동일한 언어 표현을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이므로써 의사소통을 주고받는다. 이는 ‘의미 규범’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일 텐데,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겠다.

(나)문단 1 의미의 규범적 성격

1) 크립키에 따르면 언어 표현의 의미가 단순히 기술(記述)적인 사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규범적인 현상임을 보일 때 존재론적 회의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술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이 이러저러하여 성립했다는 서술적 측면의 개념이며, 규범적이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로 사용해야만 한다는 규제적 측면의 개념이다.

☞ 맥락 짚기 통합 지문을 읽을 때에는 (나)를 읽으면서 (가)의 내용을 의식적으로 끌어올 수 있어야 한다. (가)에서는 존재론적 회의주의를 중심으로 언어 표현의 의미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근거를 제시했다면, (나)에서는 회의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의미 규범이 존재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크립키에 따르면 언어 표현의 의미가 ‘규범적’임을 보여야[→ 언어 표현의 의미가 확정된다는, 즉 의미 규범이 존재한다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존재론적 회의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2) 성향주의자들의 반론이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는 그 주장에서 의미의 규범적 요소를 확보할 수 없어서 의미상 무엇이 오류인지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 앞선 설명을 그대로 떠올리면 된다. ‘성향주의자들의 반론’은 특정 화자가 언어 표현의 의미를 무엇으로 받아들이는지를 설명할 뿐, 언어 표현의 의미를 확정하지는 못한다[(가)의 문단3-3], 즉 ‘규범적인 현상’임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나)문단 2 목적론적 언어 이론

그런데 언어 기능은 인간의 생물학적 고유 기능이다. 크립키의 회의주의적 주장에 반박하는 목적론적 언어 이론은 생물학적 기능이 그 본질에 있어 역사적인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생물학적 기능은 진화 과정에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연 선택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목적성을 지닌 규범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언어 표현의 의미 규범이 어떻게 형성되어 온 것인지에 대해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 맥락 짚기 ‘목적론적 언어 이론’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관점이 ‘크립키’의 것과 어떻게 구분되고, 과연 ‘성향주의자들’과 달리 반박에 성공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의 초점이 되겠다.

➡ ‘목적론적 언어 이론’에 따르면 언어 기능은 규범성을 갖는다. 이는 언어 기능이 ‘인간의 생물학적 기능’에 속하는데, 생물학적 기능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연 선택’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어떻게 성립하는 주장인지를 잘 쫓아가 보자.

(나)문단 3 목적론적 언어 이론의 설명

1) 예컨대 개구리는 생존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화 과정에서 ‘근방 15cm 내에 길이 0.5cm 이하의 벌레를 보면 0.05초 안에 혀를 뻗어라.’와 같은 규칙을 얻었고, 실제로 그 규칙을 따른다고 해 보자.

☞ 맥락 짚기 ‘목적론적 언어 이론’의 주장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가 주어졌다. 여기서의 설명이 각각 무엇에 대응하는지에 주목하자. 이들에 따르면 생물학적 기능은 어떤 목적성을 지닌 규범적 개념이다[문단2]. 이런 대응 관계가 성립한다.

- 목적: 생존
- 규칙: 근방 15cm 내에 길이 0.5cm 이하의 벌레를 보면 0.05초 안에 혀를 뻗어라.

➡ ‘목적론적 언어 이론’에 따르면, 개구리가 이러한 규칙을 ‘규범적’으로 따르는 것은, 그것이 ‘자연 선택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즉 그것이 목적인 ‘생존’에 가장 잘 기여하므로, 그러한 규칙에 따른다는 것이다.

2) 누군가 ‘근방에 작은 벌레를 보면 혀를 뻗어라. 단, 13.1~13.2cm 내에 있는 작은 벌레들에 대해서는 혀를 뻗지 않는다.’와 같은 변칙적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한다고 할 때, 이 변칙적 규칙을 통해서도 개구리들의 행태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 주목 ‘변칙적 규칙’이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에서 ‘변칙적 규칙’의 예시로 ‘곱하기’가 주어졌었다[(가)의 문단2-2]. ‘68+57’에서 ‘+’의 의미를 곱하기로 하는 변칙적 규칙으로도 설명할 수 있었듯이, 여기서도 변칙적 규칙을 통해 개구리의 행태를 설명할 수는 있는 것이다.

➡ ‘+’의 의미를 ‘더하기’와 ‘변칙적 규칙’ 중에서 확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 크립키의 주장이었으므로, 이 부분이 그 주장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과연 ‘목적론적 언어 이론’은 어떻게 ‘변칙적 규칙’을 배제하고, 언어 표현의 의미를 확정하는지가 중요해 보인다.

3) 하지만 개구리의 생물학적 목적을 고려할 때 개구리들이 그러한 규칙을 지닌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 같은 변칙적 규칙을 따르는 것이

자연 선택에서 우위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주목 여기서 '자연 선택의 산물'이라는 점이 활용된다. 개구리의 입장에 서 목적은 '생존'이므로, 그것에 가장 유리한 규칙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 '목적론적 언어 이론'의 주장이다. 그런데 '변칙적 규칙'을 따라 13.1~13.2cm 내에 있는 벌레들은 잡아먹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생존에 불리한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해당 변칙적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 정리하면, 개구리는 그 목적에 가장 유리한[→ 자연 선택에서 우위를 가져오는] 단 하나의 규칙을 따르게 되므로, 개구리의 생물학적 기능은 '규범적' 개념이 된다.

(나) 문단 4 목적론적 언어 이론에 따른 결론

1)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할 때 인간만의 고유 기능인 언어 기능과 그 의미 규범은 종의 존속이라는 목적에 따라 진화를 거쳐 형성되어 온 산물임을 알 수 있다.

➡ 이를 인간에게 적용한다면 '언어 기능' 역시 인간의 생물학적 기능에 해당하므로[문단2], 언어의 의미 규범도 목적[→ 종의 존속]에 따른 '규범적' 개념이 된다.

2) '+'가 '겹하기'인 것이 아니라 '더하기'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 단순히 대상의 개수를 세는 것에서부터 복잡한 계산까지 가능하게 해 줌으로써 그러한 기능을 지닌 종의 존속에 기여한 것이다. 그러므로 '+'와 관련된 다른 규칙들이 존재한다고 볼 이유는 없다.

➡ 즉 '+'의 의미를 '더하기'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그 의미를 확장하는 것이] 종의 존속에 가장 유리하므로, 그 외의 변칙적 규칙을 따른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보기> 분석

<보기> 문단

1) 2023년 1월 1일에 사과 한 개를 사기 위해 과일 가게에 간 A는 가게 주인인 B에게 "사과 하나 주세요."라고 말을 한다. 이 말을 들은 B는 포도 한 송이를 A에게 건네준다. '사과'라는 표현이 사과를 가리킨다고 믿는 A가 B에게 왜 사과가 아닌 포도를 주냐고 항의하자, ……

❖ 맥락 읽기 <보기>에 구체적인 사례가 주어지면 이를 지문의 개념들과 연결하여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는 '사과'라는 언어 표현의 의미가 '사과, 포도' 중에서 확정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주어졌다. 이와 관련해서 '크립키, 성향주의자들, 목적론적 언어 이론'의 관점에 각각 비추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 B는 '사과'라는 표현이 규칙 X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규칙 Y를 따른다고 주장한다. X는 '사과'가 언제나 사과를 의미한다는 규칙이고, Y는 '사과'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과를 의미하되 2023년 1월 1일부터는 포도를 의미한다는 규칙이다.

➡ '더하기, 겹하기'의 예시를 활용하면 쉽다. X는 '더하기'에 대응되고, Y는 변칙적 규칙, 즉 '겹하기'에 대응되기 때문이다.

- X : 언어 표현 '사과'는 언제나 '사과'를 의미한다.
- Y : 언어 표현 '사과'는 2022.12.31까지는 '사과'를 의미했지만, 2023.1.1부터는 '포도'를 의미한다.

➡ 먼저 '크립키'는 이렇게 변칙적 규칙[→ Y]도 언어 표현의 사용을 설명할 수 있어서, '사과'라는 언어 표현의 의미가 확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X, Y

모두 지금까지의 '사과'라는 언어 표현의 사용을 설명할 수 있어서, '사과'의 의미가 확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크립키가 무작정 '사과'의 의미가 확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과'가 2023.1.1. 이후에도 '사과'만을 의미한다는 점을 설명할 수만 있다면[→ 변칙적 규칙인 Y가 아닌 X만을 따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만 있다면], '사과'의 의미도 확정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이다[(나)의 문단1~1)]. 따라서 ③번 선지는 적절하다.

➡ '성향주의자들'은 이러한 크립키의 설명에 대해서, 적어도 A는 '사과'라는 언어 표현을 사용했을 때 그것이 '사과'를 의미하게 된다는 점을 '성향'을 통해 설명하면서 반박하고자 한다. 다만 '크립키'가 다시 반박했듯이, 이는 '사과'의 의미를 여전히 확정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반론이라고 볼 수가 없다 [(가)의 문단3].

➡ 반면 '목적론적 언어 이론'에 따르면, 언어 표현은 생물학적 기능에 해당하므로 '종의 존속'이라는 목적에 가장 유리한 규칙만이 남게 된다. 그 밖의 규칙이 존재한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나)의 문단4]. 비록 Y와 같은 변칙적 규칙이 '사과'라는 표현의 의미를 설명할 수는 있더라도, X가 종의 존속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X만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사과'라는 언어 표현의 의미는 '사과'로 확정되는, 규범적 개념에 해당한다[(나)의 문단2].

❖ 참고 정답 대신에 ⑤번 선지를 골랐다면 인간의 목적이 '생존'이 아니라, '종의 존속'으로 주어진음을 파악하지 못한 결과이다[(나)의 문단4~1)]. 자신의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나)의 문단3에 예시로 주어진 '개구리'에 해당한다.

이감

[10~13] 과학

수소 전이 조효소에 의한 베타 산화

❶ 지문 평가

기본적으로는 과정 중심의 글이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초점은 '베타 산화'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있다. 이는 13번 문항을 제대로 풀이하는 핵심이기도 하다. 자잘한 세부 내용은 놓치더라도, 13번 문항을 본인이 정확히 이해하고 풀었는지에 유의하자.

🔑 키워드

과학 - 생리학 - 베타 산화

산화, 환원, FAD, NAD⁺, 수소 전이 조효소, 수소 전이, 지방산, 탄소, 수소, 산소, CoA, 지방산 아실 CoA, 베타 산화, 아세틸 CoA, FADH₂, NADH, 이온화 경향

문단 1 산화 환원

1) 전자를 잃는 반응을 **산화**, 전자를 얻는 반응을 **환원**이라고 한다.

❶ 맥락 짚기 '산화'와 '환원'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니 의식해서 정리해 두자. 첫 문단에서 이루어지는 구분은 특히 중요하다. 지문을 읽는 내내 활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산화	환원
전자를 잃음	전자를 얻음

2) 인체에서도 생물학적 산화 환원이 나타나는데, 주로 생명 유지를 위한 에너지 공급에 필요한 물질을 얻기 위해 이루어진다. 건전지의 음극에서 양극으로 전자가 이동함에 따라 음극은 산화되고 양극은 환원되는 것처럼, 산화와 환원은 보통 짝 지어 나타난다. 인체의 세포에서는 **FAD**나 **NAD⁺** 등의 '**수소 전이 조효소**'들의 도움에 의해 산화 환원이 이루어진다.

➡ 음극이 전자를 잃어 '산화'되면, 양극은 음극에서 이동한 전자를 받아 '환원'된다. 즉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어야, 나머지 물질은 전자를 얻으므로 산화와 환원은 짝 지어 나타나는 것이다.

❶ 맥락 짚기 글의 초점이 주어지는 대목이다. 인체에서도 '산화, 환원'은 나타나는데, 그중에서도 '수소 전이 조효소'의 도움으로 일어나는 산화, 환원에 대해 살펴볼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산화, 환원이 어떻게 '짝 지어' 일어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단 2 지방산의 분해

1) **수소 전이**란 수소와 잘 결합하는 성질에 의해 수소를 얻음으로써 전자를 얻는 것으로, 이는 수소를 잃는 산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FAD와 NAD⁺는 수소 전이를 통해 분해 대상인 에너지원이 점차 짧아지면서 반복적으로 분해되도록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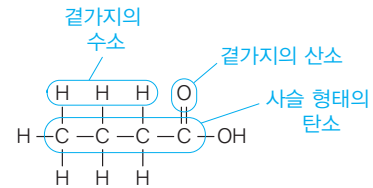
➡ '수소 전이'에 대한 설명이다. 수소 전이에 의해 수소를 얻으면 전자를 얻는다[→ 환원된다]. 이렇게 어떤 물질이 수소를 얻는다는 것은, 나머지 물질이 수소를 잃는다는 뜻이다. 이는 곧 나머지 물질이 전자를 잃는다는 뜻이 되므로, 나머지 물질은 산화된다. 이렇게 산화, 환원이 짝 지어 나타나는 것이다 [문단1-2].

❶ 주목 글의 초점에 해당하는, 'FAD, NAD⁺'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FAD, NAD⁺'는 에너지를 분해하는 과정이 '반복'되도록 돕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유의해야 하는 것은, 'FAD, NAD⁺'는 어디까지나 산화, 환원을 '돕는' 역할을 하지, 직접 산화, 환원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문단1-2]. 이를 의식하면서 '수소 전이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이때의 분해 대상은 **지방산**으로, 이는 긴 사슬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탄소**들에 겹가지로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를 띠고 있다. 지방산의 한쪽 끝에는 **산소**를 겹가지로 둔 탄소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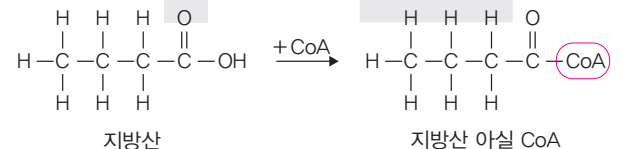
❶ 맥락 짚기 분해 대상인 '지방산'의 구조를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묘사 주어지는 경우에는,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 모양을 대략적으로 떠올리거나 표현해 두는 편이 좋다.

❶ 참고 여기서는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은 구조를 그리면서 설명을 쫓아가겠지만, 적당히 비슷한 구조를 떠올리거나 했어도 충분하다. H는 '수소', C는 '탄소', O는 '산소', 그리고 OH는 지문에서 다루지는 않았으나,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하이드록시기'를 뜻한다.



3) 지방산이 분해되려면 먼저 지방산에서 산소를 겹가지로 둔 탄소[→ 한쪽 끝의 탄소]에 **CoA**라는 또 다른 조효소가 결합되어, 지방산이 **지방산 아실 CoA**로 변형되어야 한다. 이어 FAD와 NAD⁺의 도움에 의해 지방산이 분해되는 과정인 **베타 산화**가 나타난다.

❶ 맥락 짚기 '지방산의 분해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과정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첫 번째, 지방산의 한쪽 끝에 CoA가 결합한다. 그에 따라 지방산은 '지방산 아실 CoA'가 된다. 아직까지는 글의 초점인 'FAD, NAD⁺'가 쓰이지는 않았다. 이들은 이 다음 단계인 '베타 산화'에서 쓰인다.



4) 베타 산화의 산물은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에 필요한 **아세틸 CoA**이다. 이는 지방산 아실 CoA에서 분해된 작은 분자로, 사슬 형태를 이루던 탄소들 중 **탄소 2개에 산소와 CoA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 두 번째, '베타 산화'가 이루어진다. 그 산물로 '아세틸 CoA'가 만들어지는데, 이는 '탄소 2개, 산소, CoA'가 결합된 것이다. 이 베타 산화의 과정에서 'FAD, NAD⁺'가 어떻게 기여하는지가 핵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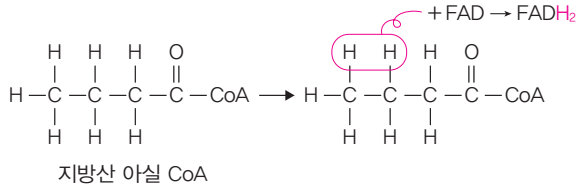
문단 3 베타 산화

1) 베타 산화는 FAD가 돕는 산화와 NAD⁺가 돕는 산화 등 두 번의 산화 환원을 포함한다. 먼저 FAD는 지방산 아실 CoA의 한쪽 끝 탄소들에 붙어 있던 수소들 중 2개가 떨어져 나오도록 도와 이들과 결합하는 환원에 의해 **FADH₂**가 된다.

➡ 베타 산화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다. 베타 산화는 'FAD가 돕는 산화', 'NAD⁺가 돕는 산화'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산화, 환원은 짝 지어

나타나므로[문단1-2], 마찬가지로 '환원'도 두 번 나타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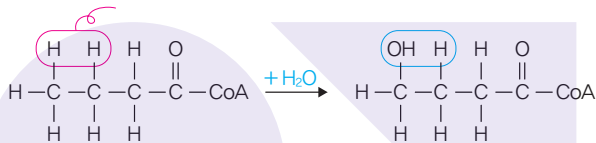
➡ 첫 번째 '산화'는 '지방산 아실 CoA'의 한쪽 끝에서 나타난다. FAD는 지방산 아실 CoA의 한쪽 끝에서 수소 2개가 떨어져 나오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이들과 결합한다. 즉 FAD는 수소 2개를 얻음으로써 환원되고, 이는 곧 지방산 아실 CoA의 산화를 돕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물질이 산화되려면 나머지 물질이 환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이는 다음 단계에서 지방산 아실 CoA에 산소와 수소가 잘 결합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때의 산소와 수소는 물 분자에서 분해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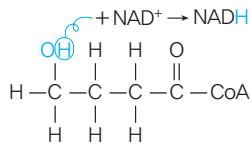
➡ 이렇게 FAD가 돕는 첫 번째 산화에 의해, '지방산 아실 CoA'에서 수소 2개가 떨어져 나감에 따라, 그 자리에는 물 분자에서 분해된 산소와 수소가 결합할 수 있게 된다.

☞ 참고 이때 정확히는 산소와 수소가 각각 하나씩 빈자리에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자리에는 '수소'가, 다른 한 자리에는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하이드록시기'가 결합한다. 물론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지문을 이해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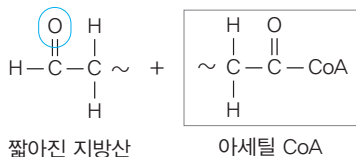
3) 이어 NAD⁺는 물 분자에서 온 수소가 다시 떨어져 나오도록 도와 NADH가 된다.

➡ 두 번째 '산화'는 지방산 아실 CoA의 빈자리에 결합한 '물 분자에서 온 수소'를 잃는 산화이다. 이때 NAD⁺가 이 수소를 얻음으로써 환원되는 식으로, 두 번째 산화를 돕게 된다. 계속해서 말했듯이 산화, 환원은 짝 지어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문단1-2].



4) 이후 지방산 아실 CoA에서 아세틸 CoA가 떨어져 나오면서 길이가 짧아진 지방산이 남는다. 그 한쪽 끝 탄소는 물 분자에서 온 산소를 결가지로 두고 있다.

➡ '베타 산화'가 이루어지면 '아세틸 CoA'가 분리된다. 즉 지방산이 짧아지면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물질을 얻게 된다[문단1-2].



문단 4 FAD₂와 NADH의 산화

1) 긴 지방산은 베타 산화가 반복되면서 분해됨에 따라 점차 짧아진다. 이를 위해 FAD₂와 NADH는 인근에 있는 산소 분자에 수소를 내어 주고 이내 FAD와 NAD⁺로 전환된다.

➡ 'FAD, NAD⁺'는 베타 산화 과정에서 환원되어, 'FADH₂, NADH'로 바뀐다. 그런데 베타 산화는 연달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짧아진 지방산'에서 아세틸 CoA가 떨어져 나오는 베타 산화가 또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 따라서 'FADH₂, NADH'는 다시 베타 산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FAD, NAD⁺'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즉 수소를 잃음으로써 산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이는 전자를 잃고 산화되려는 정도를 나타내는 **이온화 경향**의 차이에 의해 일어난다. FADH₂와 NADH의 이온화 경향은 산소 분자에 비해 매우 커서 FADH₂나 NADH에 있던 수소가 자발적으로 산소 분자로 이동하는 것이다[→ 산화되는 것이다].

➡ 'FADH₂, NADH'가 다시 산화될 수 있는 것은 '이온화 경향'이 인근의 산소 분자보다 크기 때문이다. 개념들 간의 관계가 주어졌으므로 정리해 두자.

이온화 경향 ↑ ⇨ 산화되려는 정도 ↑

☞ 주목 'FAD, NAD⁺'가 베타 산화에 참여하려면, 그에 앞선 단계로 '지방산 아실 CoA'가 만들어져야 한다. 한마디로, '산소를 결가지로 둔 탄소'에 CoA가 결합해야만 한다[문단2-3]. 이 대목에서 왜 문단3-4에서 '그 한쪽 끝 탄소는 물 분자에서 온 산소를 결가지로 두고 있다.'는 점을 짚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만약 해당 산소가 베타 산화의 과정에서 결합하지 않았다면, '산소를 결가지로 둔 탄소'가 없으므로 CoA가 결합할 수 없고, 그러면 베타 산화가 다시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베타 산화의 과정에서 탄소의 결가지로 '산소'를 결합시키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보기> 분석

<보기> 문단

1) FAD의 기여에 의해 분해 대상에는 (㉠)가 결합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

☞ 맥락 짚기 'FAD와 NAD⁺'는 수소 전이를 통해 분해 대상인 에너지원이 점차 짧아지면서 반복적으로 분해되도록 돕는다.'라는 서술이 가능한 이유를 골라야 한다. 'FAD, NAD⁺'는 지방산의 분해 과정 중 베타 산화에 기여하므로 문단3을 참고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문단3-4의 '그 한쪽 끝 탄소는 물 분자에서 온 산소를 결가지로 두고 있다.'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의식했다면 더욱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 FAD는 첫 번째 산화를 돕는다. FAD가 수소 2개를 얻음으로써 FADH₂로 환원되기 때문에, 지방산 아실 CoA는 수소 2개를 잃음으로써 산화된다[문단3-1].

∴ 이렇게 생긴 지방산 아실 CoA의 빈자리에, 물 분자의 산소와 수소가 결합하게 된다[문단3-2]. 따라서 ㉠에는 '물 분자에서 유래한 산소와 수소'가 들어가야 한다.

2) …… NAD⁺의 기여 후에 물 분자에서 유래한 산소를 여전히 포함하고 있는 (㉡)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 이어서 NAD⁺가 두 번째 산화를 돕는다. '물 분자에서 온 수소'를 NAD⁺가 얻음으로써 'NADH'로 환원되기 때문에, 지방산 아실 CoA는 수소 1개를 잃음으로써 산화된다.

※ 주목 이후 지방산 아실 CoA에서 '아세틸 CoA'가 떨어져 나오는데, 이때 '물 분자에서 온 산소'는 짧아진 지방산의 한쪽 끝 탄소에 결합지로 여전히 남게 된다[문단3-4]. 바로 그 이유로, 해당 탄소에 다시 CoA가 결합할 수 있고 [문단2-3], 그에 따라 '베타 산화'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대목을 의식하지 못했다면, 지문 분석에서의 가장 마지막 '주목'을 다시 읽어 보자].

∴ 짧아진 지방산이 물 분자에서 온 산소를 여전히 결합지로 갖고 있어서, 새로운 CoA와 결합하여 다시 베타 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㉔에는 '지방산은 새로운 CoA와 결합할'이 들어가지 않는다.



[14~17] 사회

공직선거법에 따른 반론권 행사

지문 평가

'반론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언론중재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에서도 반론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지, 그렇다면 두 경우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인 글이다. 어려운 내용을 다루지 않으면서도, 기본적인 독해 역량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좋은 글이다.

키워드

사회 - 법학 - 반론권, 공직선거법

언론중재법, 반론권, 개인화 보도, 부정식 보도, 공직선거법, 심의 위원회, 언론사, 거부 사유, 청구인, 언론중재법의 반론 보도 거부 사유

문단 1 언론중재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반론권의 개념

1) 언론중재법은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보도 내용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권리인 반론권을 보장하고 있다.

▶ '반론권'에 대한 설명이다. 반론권은 '언론중재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해당 당사자가 보도 내용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그런데 대통령 선거 등 공직 선거 기간에는 후보자의 사적 영역에 대해 보도하는 개인화 보도나, 후보자 혹은 정당의 비리를 폭로하는 부정식 보도가 난무하여 선거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공직선거법에서는 별도의 반론권 규정을 두고 있다. 선거 보도에 대한 반론권을 신속하게 보장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함이다.

▶ '공직 선거 기간'에는 언론 보도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맥락 짚기 글의 초점이 주어지는 대목이다. '언론중재법에 따른 반론권'과는 별개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반론권'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하였으므로, 이 둘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주목 여기서 방향을 분명히 잡아야 한다. '언론중재법에 따른 반론권'이 있는데, '공직선거법에 따른 반론권'을 굳이 따로 보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다. 명시된 두 가지 이유를 잘 챙겨 두자. 앞으로 제시되는 설명이 어떤 이유와 관련이 있을지를 계속해서 의식할 수 있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반론권을 보장하는 이유>

- 반론권의 신속한 보장
- 유권자의 알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

문단 2 공직선거법에 따른 반론권 행사 규정

1)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기간에는 선거 보도의 공정성을 조사하여 방송 통신 위원회나 언론 중재 위원회에 제재 조치를 건의하는 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이는 예비 후보자 등록 개시일의 전날에 설치되어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된다. 이와 관련한 반론권 행사는 심의 위원회 설치일로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 보도를 대상으로 한다.

▶ '공직선거법에 따른 반론권 행사'의 구체적인 규정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고 있다. 선거 보도의 공정성을 조사하는 주체는 '심의 위원회'이다[→ '조사'의 주

체와 '제재'의 주체가 다르다는 점도 인식하자. 심의 위원회가 '모든' 언론 보도의 공정성을 따지는 것은 아니다.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챙겨 두자.

<심의 위원회>

- ① 운영 기간: 예비 후보자 등록 개시일의 전날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 ② 심의 대상: 심의 위원회 설치일(→ 예비 후보자 등록 개시일의 전날)로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 보도

2) 다만 언론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론 보도 청구를 하고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언론사**가 반론 보도를 해야 하는 언론중재법의 규정과 달리, 반론 보도 청구와 그에 따른 반론 보도가 각각 10일 이내,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맥락 짚기** '언론중재법에 따른 반론권'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반론권'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인식해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
반론 보도 청구	3개월 이내	10일 이내
반론 보도	7일 이내	48시간 이내

☞ **주목** 이때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공직선거법'에서 상대적으로 훨씬 더 '짧은' 기한을 두고 있음이 중요하다.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굳이 '별도의 반론권 규정'을 두는 이유와 관련이 있다[문단1-2]. 즉 반론권을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짧은 기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3) 정기 간행물의 경우에는 다음 호의 발행일이 선거일 전이면 48시간을 넘기더라도 다음 호에 반론 보도를 하면 되지만, 그 발행일이 선거일 후이면 48시간 이내에 일간 신문에 반론 보도를 해야 한다. 이처럼 공직선거법의 반론권 규정은 외국된 보도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선거일 전에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일간지는 기한 내의 반론 보도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다만 주간지, 월간지 등의 '정기 간행물'은 기한인 48시간 이내의 반론 보도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다음 호의 발행일이 '선거일 전'이면, 48시간을 넘기더라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 **주목** 다만 다음 호의 발행일이 '선거일 후'인 경우에는 일간 신문에 기한 내에 반론 보도를 해야 한다. 선거일 후에는 반론 보도를 하더라도, 이미 해당 보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후일 테니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치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려는 것과도 관련이 있겠다[문단 1-2].

문단 3 심의 위원회에 따른 반론 보도 청구의 구체적 과정

반론 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는 **거부 사유**가 없다면 곧바로 반론 보도의 내용, 횟수 등에 대해 **청구인**과 협의해야 한다. 협의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 언론사나 청구인은 심의 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 심의 위원회는 회부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의 기각이나 인용을 결정하여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하며, 청구 인용 결정을 내릴 때에는 반론 보도가 그 즉시 이루어지도록 반론 보도의 내용과 횟수가 지 결정한다.

- ▶ 달리 말하면 '거부 사유'가 있다면 반론 보도 청구에 꼭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항상 '거부 사유가 없다면'과 같은 문장 내의 조건에 유의하자.
- ▶ '언론사'는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인 '청구인'의 반론 보도 청구를 받으면, 반론 보도에 관해서 청구인과 협의해야 한다.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떻

게 반론 보도를 할 것인지가 정해지는 것이다. 물론 항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 위원회에 반론 보도 청구를 회부할 수 있다.

☞ **주목** 단 심의 위원회의 결정이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자. 그리고 '청구 인용' 결정이 난 경우에는 반론 보도가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챙기자. 즉 어떻게든 48시간이라는 기한 이내에 반론 보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또한 반론권을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문단1-2].

문단 4 공직선거법에 따른 반론 보도 거부 사유

1) 반론권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사자에게 반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여되는 것이다. 다만 그 행사가 남용될 수 있어서 공직선거법은 **언론중재법의 반론 보도 거부 사유**를 준용하고 있다. 반론 보도로 청구인이 얻을 정당한 이익이 없을 때, 청구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거나 위법한 것일 때에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 **맥락 짚기** 반론권의 목적으로 '반론 기회 제공'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실체적 진실을 밝힘'과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정보가 주어졌을 때에는 이 둘을 의식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반론권의 목적>

반론 기회 제공 ○
실체적 진실을 밝힘 ×

▶ 그런데 당사자가, 즉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반론권 행사를 남용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론 보도 거부 사유'를 두고 있는 것이다. 앞선 내용을 떠올리자. '거부 사유'가 있으면, 청구인의 반론 보도 청구에 언론사가 꼭 응하지 않아도 된다[문단3].

▶ 구체적으로 열거되는 '거부 사유'를 챙겨 두자.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열거될 때에는 그것이 선거에서 직접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론 보도 거부 사유>

- ① 반론 보도로 청구인이 얻을 정당한 이익이 없을 때
- ② 청구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거나 위법한 것일 때

2) 여기에는 거부 사유의 해당 여부를 언론사가 판단하게 하는 문제나 '정당한', '명백히' 등의 기준에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우려가 있다. 더욱이 반론 보도가 거부될 때 결국 재판을 거쳐야 한다는 점은 신속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반론권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

☞ **주목** 반론 보도를 언론사가 거부한 경우, 청구인이 반론 보도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하려면 '재판'을 거쳐야 한다는 절차적 사실은 챙겨 두자.

<보기> 분석

<보기> 문단

(가) 어떤 공직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 개시일에 **갑**은 언론사 **을**에 반론 보도 청구를 했다. 갑은 을이 5일 전에 발행한 월간지에서 의 보도 내용이 자신의 정책을 왜곡했다며 반론 보도를 요구한 것이다.

▶ '공직선거법에 따른 반론권' 행사의 대상은 심의 위원회 설치일로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 보도다[문단2-1].

<심의 위원회>

- ① 운영 기간 : 예비 후보자 등록 개시일의 전날부터 선거일 후 30일 까지
- ② 심의 대상 : 심의 위원회 설치일[→ 예비 후보자 등록 개시일의 전날]로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 보도

※ 주목 즉 예비 후보자 등록 개시일의 5일 전의 보도 내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반론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다만 '언론중재법에 따른 반론권'의 행사는 가능하다. 언론중재법은 반론권의 대상이 되는 언론 보도의 기간에 딱히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기간에만 '반론권의 행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반론권의 대상이 되는 언론 보도의 기간에는 제한이 있지만, 언론중재법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①번 선택지는 적절하다.

(나) 심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공직 선거 기간에 방송사 ㉞은 반론 보도 청구를 받았다. 청구인이 요구한 반론 보도 내용에는 선거 관련 제보자의 신상 정보도 포함되어 있어 그대로 방송될 경우 개인의 명예 등 인격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었다. 또한 보도 내용의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반론이어서 그 효과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 반론 보도 청구를 받은 '병'은 거부 사유가 없으면 반론 보도의 내용 및 횟수를 청구인과 협의해야만 한다. 하지만 '거부 사유'가 있으면 반론 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문단3]. 이때 구체적인 거부 사유들은 다음과 같다.

<반론 보도 거부 사유>

- ① 반론 보도로 청구인이 얻을 정당한 이익이 없을 때
- ② 청구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거나 위법한 것일 때

▶ '선거 관련 제보자의 인격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것은 ②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반론하고자 하는 보도 내용의 지엽성'은 ①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반론권의 목적이 '반론 기회의 제공'이라고 해도, 이렇게 적당한 거부 사유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반론 보도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 물론 이는 언론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거부일 수도 있으며, 청구인은 그에 불복하여 재판을 거쳐 반론권 행사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주장할 수도 있다[문단4-2].

[18~22] 고전시가

(가) 「여뀌꽃과 백로」

— 이규보 —

— 작품 평가

물가 언덕에 서 있는 백로를 소재로 현실을 풍자하고 있는 작품이다. 초연한 모습으로 서 있는 백로가 실은 사람을 피해 물고기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과, 이러한 백로를 욕심 없는 존재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고고해 보이는 겉모습 이면에 욕심을 지니고 있는 존재와, 그러한 존재의 본모습을 제대로 통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앞 여울에 물고기와 새우[→ 백로가 노리는 먹이]가 많아 前灘富魚蝦
물결 뚫고 들어갈 생각 있는데 有意劈波入

▶ 먹이를 노리는 백로의 속마음을 제시하고 있다.

사람[→ 백로에게 있어 경계의 대상] 보고는 문득 놀라 일어나

見人忽驚起

여뀌꽃 핀 언덕으로 도로 날아가 모였네

蓼岸還飛集

▶ 사람을 경계하여 먹이잡이를 포기하고 근처 언덕으로 피하는 백로의 행위에 대한 진술이다.

목을 빼고 사람이 돌아가길 기다리다

翹頸待人歸

가랑비에 깃털이 다 젖는구나

細雨毛衣濕

▶ 언덕에서 비를 맞으며 사람들이 돌아가기를 기다리는 백로의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 이어지는 시구를 볼 때, 긴 목을 치켜세운 우아한 자세로 오랫동안 서 있는 백로의 모습을, 사람들은 먹이 따위에는 무관심한 고고한 모습으로 착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음은 여울의 물고기에 가 있는데

心猶在灘魚

사람들은 말하네 기심(機心, 기회를 엿보아 이익을 취하려는 마음)을 잊고

서 있다고

人道忘機立

▶ 백로의 '마음'이 '여울의 물고기'를 잡을 생각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간파한 화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태도가 대비되고 있는 부분이다. 백로의 '마음'은 여울의 물고기에 가 있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 다음 백로가 '기심을 잊고 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먹이를 노리는 백로의 욕심을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작품 평가

제목인 '상리과원'은 '상리'라는 이름의 마을에 있는 과수원이라는 뜻이다. 꽃이 만발한 봄날의 과수원에서 보고 느낀 바를 바탕으로 인간 삶의 바람직한 자세를 노래한 작품이다. 이 시의 창작 시기가 6.25 직후인 것을 고려한다면, 전후 팽배했던 허무적이고 비극적인 현실 인식에서 벗어나 기쁨이 충만한 미래 삶에 대한 지향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토막 1 꽃이 만발한 과수원

꽃밭은 그 향기만으로 볼진대 한강수나 낙동강 상류와도 같은 융릉(隆陵)한(= 기운찬) 흐름이다. 그러나 그 낱알의 얼굴들로 볼진대 우리 조카딸년들이나 그 조카딸년들의 친구들의 웃음판과도 같은 굉장히 질겨운(= 줄겨운) 웃음판이다.

▶ 꽃이 만발한 과수원을 '꽃밭'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 '꽃밭'의 '향기'를 기운차게 흐르는 강물에, 각각의 꽃들을 '조카딸년들'이나 그 '친구들'의 웃는 얼굴에 빚대고 있다. 향기가 넘쳐흐르고 꽃들이 만개한 봄날의 과수원을 접한 화자의 느낌을 인상적으로 그려 내고 있는 것이다.

토막 2 꽃나무 그리고 새와 벌

세상에 이렇거나 타고난 기쁨을 찬란히 터뜨리는 몸뚱아리들이 또 어디 있는가. 더구나 서양에서 건네온 배나무의 어떤 것들은 머리카슴빼기뿐만이 아니라 배와 허리와 다리 발꿈치에까지도 이쁜 꽃송이들을 달았다. 맵새, 참새, 때까치, 꿩꼬리, 꿩꼬리 새끼들이 조석으로 이 많은 기쁨을 대신 읊조리고, 수십 만 마리의 꿀벌들이 원종일 북치고 소고치고 마짓곳(= 신을 맞이하는 곳) 올리는 소리를 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놈은 더러 그 속에 묻혀 자기도 하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다.

▶ 꽃을 피워 낸 나무들을 '기쁨을 찬란히 터뜨리는 몸뚱아리들'이라고 함으로써, 꽃을 '기쁨' 그 자체로 표현하고 있다. 꽃뿐만 아니라 그 주위를 노니는 새들과 벌들의 모습까지 그려 넣으로써, 과수원의 분위기를 생명력과 흥취가 넘치는 한바탕 잔치처럼 그려 내고 있다.

▶ 작품의 창작 시기를 고려할 때 '참으로 당연한 일'이라는 말은, 전후의 황폐하고 암울한 현실이 아닌 활력과 생명력이 넘치는 세상이야말로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토막 3 우리의 자세

우리가 이것들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묻혀서 누어 있는 못물(= 못에 고여 있는 물)과 같이 저 아래 저것들을 비취고 누어서, 때로 가냘푸게도 떨어져 내리는 저 어린것들의 꽃잎사귀들을 우리 몸 위에 받아라도 볼 것인가. 아니면 머언 산들과 나란히 마조 서서, 이것들의 아침의 유두분면(油頭粉面, 기름 바른 머리와 분 바른 얼굴. 여인의 화장을 이룸)과, 한낮의 춤과, 황혼의 어둠 속에 이것들이 찾아들어 돌아오는 — 아스라한 침잠이나 지킬 것인가.

▶ 외부 세계인 과수원을 향해 있던 화자의 시선이, 그것을 보는 화자 자신의 내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더불어, 걱정적으로 이어지던 호흡도 한층 차분해지고 있다.

▶ 꽃이 만발한 과수원과 같은 생명력 넘치는 세계를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 묻고 나서, 사람들이 '못물'이나 '머언 산들'처럼 되어 보는 가정을 펼치고 있다. '우리 몸 위에 받아라도 볼 것인가'나 '아스라한 침잠이나 지킬 것인가'라는, 다소 회의적인 어조를 띤 물음은, 꽃밭처럼 환희롭고 아름다운 자연, 즉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세계와 완전하게 합일될 수는 없는 인간의 한계와 그로 인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토막 4 우리 어린것들에게 1

하여간 이 한나도(= 하나도) 서러울 것이 없는 것들 옆에서, 또 이것들을 서러워하는 미물 하나도 없는 곳에서, 우리는 선불리 우리 어린것들에게 설움 같은 걸 가르치지 말 일이다. 저것들을 축복하는 때까치의 어느 것, 비비새의 어느 것, 벌 나비의 어느 것, 또는 저것들의 꽃봉오리와 꽃송이들의 어느 것에 대체 우리가 향용(= 흔히늘) 나죽히 주고받는 슬픔이란 것이 것들이어 있단 말인가.

▶ '선불리 우리 어린것들에게 설움 같은 걸 가르치지 말 일'이라고 한 것은, 삶의 슬픔에 매몰되지 않는 자세의 필요성을 말함으로써 기쁨이 충만한 미래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작품의 창작 시기를 고려할 때, 전후 팽배했던 허무적이고 비극적인 현실 인식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때까치', '비비새' 등의 '어느 것'에서도 슬픔을 찾을 수 없다고 함으로써, 과수원을 부정적인 기운이 조금도 깃들지 않은 밝고 활기찬 세계로 그려 내고 있다.

토막 5 우리 어린것들에게 2

이것들의 초밤(= 이른 밤)에의 완전 귀소(完全歸巢)[→ '귀소'란 동물이 집이나 동지로 돌아감을 뜻함]가 끝난 뒤, 어둠이 우리와 우리 어린것들과 산과 냇물을 까마득히 덮을 때가 되거든, 우리는 차라리 우리 어린것들에게 제일 가까운 곳의 별을 가리켜 보일 일이고, 제일 오래된 종소리를 들릴 일이다.

▶ '어둠'이 드리운다는 것은, 암울한 상황의 도래를 암시한다. 이때 가리켜 보일 '가까운 곳의 별'은 멀지 않은 데서 찾아야 할 삶의 희망을, 들려줄 '오래된 종소리'는 오랜 연륜에서 비롯된 삶의 지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서의 희망과 지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